

정부, 알뜰폰 활성화 한다더니

# 어긋난 망 이용료 협상에 시름만 깊어진 알뜰폰업계

정부, 한발 물러선 도매대가 비율책정 헬로모바일, 데이터 무제한요금제 폐지 업계 “7.2%p 인하효과 거의 없다”

“망 도매대가 협상만 제대로 이뤄져도 알뜰폰 업계를 중심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가 쏟아졌을 것입니다.”(알뜰폰 업계 관계자)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이 당초 계획과 달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알뜰폰 업체가 불똥을 맞고 있다. 특히 정부가 애초 약속했던 망 도매대가 협상에 한발 물러난 모양새를 보이며 업계의 실망감이 커졌다.

◆과기정통부 한발 물러난 조치에 알뜰폰만 ‘죽을 맛’

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현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망 도매대가를 10%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혔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같은 해 11월 데이터 중심 요금제에서 평균 7.2%포인트 인하한 도매대가 비율을 책정하면서 알뜰폰 업체들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가 애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여파가 곧바로 알뜰폰 업계의 사업 계획에 직격타로 작용한 것.

당장 3만원대의 저렴한 요금에 제공됐던 데이터



모델들이 헬로모바일 ‘보편 USIM 10GB’ 요금제를 소개하고 있다. /CJ헬로

무제한 요금제가 폐지됐다. CJ헬로비전이 대표적이다. 알뜰폰 최대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은 지난달로 월 3만3000원에 데이터·음성·문자를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10GB 33 요금제’ 이벤트를 접었다.

CJ헬로비전 관계자는 “정부의 망 도매대가 인하 계획에 맞춰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하는 등 사업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던 것인데, 기대에 못 미치는 망 도매대가 협상 결과로 인해 적자가 날 판”이라며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헬로모바일은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 대신 월 2만2000원에 데이터 10기가바이트(GB)와 음성통화 100분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내놨다. 무제한은 아니지만, 기존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에 비해 저렴하다는 설명이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실질적인 비율을 따져보면 현재 7.2%포인트로 인하한 도매대가가 별다른 인하 효과가 없다고 말한다. 올해부터 알뜰폰 업체가 이동통신사에 부과하는 기본료를 합산해 도매대가를 책정하는 등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비율로 따져보면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중소 알뜰폰 업체의 경우 망 도매대가 인하안이 발표될 때까지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고 요금제 계획을 짰지만, CJ헬로처럼 대기업이나 MNO 자회사가 운영하는 알뜰폰 업체의 경우 10% 망 도매대가 인하를 기준으로 기획했을 것”이라면서 “망 도매대가 업계 기대에 못 미쳤으니 그간 제공했던 이벤트성 요금제 할인 등은 폐지하고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다시 요금제를 올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도 망 도매대가가 관건”

이제 업계의 눈은 보편요금제에 쏠린다. 보편요금제는 데이터 1GB·음성 200분을 2만원대에 제공하

는 요금제다. 현재 이동통신사가 3만원대에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를 1만원 가량 낮추는 셈이다.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이달까지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는 논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해매는 모양새다. 이동통신 3사가 보편요금제 도입에 거세게 반대하고 있어 제도 추진에 드라 이브가 걸렸기 때문. 이로 인해 새 정부가 통신요금으로 다양한 공약을 추진했지만 결국 보편요금제, 망 도매대가 인하, 알뜰폰 활성화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알뜰폰 업계는 대체적으로 보편요금제에 반대하는 추세다. 보편요금제로 이동통신사에서 저렴한 요금제가 나오면 알뜰폰 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만, 오히려 보편요금제를 추진할 때 정부가 사후처리를 확실시 한다면 알뜰폰 업계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동통신사에서 2만원대의 보편요금제가 나오기에 따른 후속조치가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망 도매대가 인하 조치가 함께 시행되면, 알뜰폰 업계에서는 이동사와 똑같은 조건으로 1만5000원, 1만4000원 등의 저렴한 요금제를 추진할 여력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 예비진단으로 중소기업 애로 해결

중진공, 공모형 종합진단 실시

중소기업이 올해부터 맞춤형 연계지원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진단결과를 기반으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공모형 종합진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형 종합진단은 기존 종합진단과 달리 예비진단 과정을 먼저 거친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간단한 애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해결을 지원하고 필요하면 종합진단까지 실시한다.

중진공은 진단을 바탕으로 기업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같은 지원사업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참여기업은 3년간 연계지원을 및 성과지표 관리 등의 밀착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공모형 종합진단에 총 90개사가 참여했다. 중소기업이 고민 하던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진단과 해법 제시로 많은 도움이 됐다는 호평을 받았다. /임현재 기자 ihj@

### 한줄 News

#### 정책·사회

▲ 교육부가 어린 자녀가 있는 남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10시 출근제’를 도입한다.

▲ 지난해보다 16.4% 인상된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시행이 보름 정도 지난 가운데 정부가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 산업

▲ 최태원 SK 회장이 2018년 그룹 신입사원들에게 “패기와 틀을 깨는 사고로 뉴(New) SK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 남준우 삼성중공업 사장이 16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수주목표 달성과 2019년 흑자 전환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 금융·마켓

▲ 금리 상승이 본격화되면서 ‘생계형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 정부가 ‘코스닥 띄우기’에 나서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중소형주 투자에 주목하고 있다.

#### 유통

▲ SPC그룹이 인천국제공항 제 2여객터미널 준공에 맞춰 식음료 매장 등 컨디션사업 운영을 시작한다.

## 지난해 장기백수 14만7000명 ‘역대 최대’

통계청, 지난해 통계결과

전년도 보다 10.5% 늘어

고용 한파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장기 실업자 수가 지난해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구직기간 6개월 이상 실업자는 14만7000명으로 전년도인 2016년의 13만3000명 보다 1만4000명(10.5%)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대치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8만 명과 외환위기 중이던 2000년도의 13만8000명 보다도 많은 것이다.

전체 실업자 중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도 14.3%를 기록해 2000년(14.1%) 당시 역대 최고 기록을 17



지난 10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서울시 청년 일자리센터에서 한 청년이 홀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년 만에 같아지었다.

문제는 최근 몇 년간 이른바 ‘장기 백수’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사정이 수년간 악화를 거듭하면서 실업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실제 지난 2014년 7.5%였던 6개월 이상 실업자 비중은 2015년 10.0%, 2016년 13.1%를 기록하며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올라갔다.

청년(15~29세) 실업률도 2014년 9.0%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9.9%까지 상승하면서 4년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장기 실업자 중 상당수가 원하는 직장을 찾지 못해 오랜 기간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일시적으로 구직을 포기해 취업준비생 등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됐다가 취업에 재도전하는 경우도 있어 실제 장기 백수 비중은 더 클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장기 실업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한국 경제의 성장이 반도체 등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부문을 중심으로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으로 꼽힌다.

이렇듯 일자리 증가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2차 에코세대의 대규모 노동시장 진입이 본격화하고 있어 고용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이노비즈기업, GDP 17% 차지… ‘혁신성장의 주역’

이노비즈協, 정밀 실태조사 2016년 총 매출 271조 거둬

기술혁신에 집중하는 이노비즈기업들의 연구개발(R&D) 투자비중이 대기업의 두 배를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만7708개에 달하는 이노비즈기업(2016년 말 기준)이 거둔 총 매출액은 271조원으로 국내 GDP(1637조원)의 17%를 차지했다. 또 2곳 중 1곳 가량이 수출을 할 정도로 ‘글로벌 기업군’ 반열에 올라서고 있다.

이노비즈협회가 이노비즈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해 16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91.6%가 연구개발조직을 보유하고, 특히 74.2%는 기업부

설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당 R&D 투자비중은 이노비즈기업이 3.15%로 대기업(1.51%)과 일반중소제조업(1.33%)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노비즈기업이 ‘기술 혁신’에 걸맞게 R&D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노력은 실적에서 고스란히 나타났다.

이노비즈기업 가운데 3년 연평균 매출증가가 20% 이상인 ‘고성장기업’은 2269개로 국내 고성장기업(1만8287개)의 12.4%를 차지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이노비즈기업의 매출증가율은 평균 4.4%로 같은 기간 마이너스(-)를 기록한 대기업(-1.64%)보다 높았다. 영업이익

률은 평균 4.8%로 대기업(6.6%)보다는 낮았지만 일반 중소기업(3.9%)을 넘어섰다. 부채비율은 117.2%로 전년도(119.7%)보다 줄었다.

이같은 내실은 인력 창출과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이노비즈기업 1곳이 채용하고 있는 인력은 평균 42.8명으로 전체적으로 76만명에 달한다. 이는 국내 5인 이상 중소기업 종사자(220만명)의 35%를 담당하고 있는 수준이다. 전체 이노비즈기업의 50.6%가 수출을 하고, 평균 수출액은 간접 수출(19.6억원 추정)을 포함해 70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0년 당시 평균 수출액은 46억3000만원으로 최근 6년간 연평균 7.2%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수출 전사 역할을

특목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노비즈협회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이노비즈기업 숫자를 2만2000개까지 발굴, 육성하겠다는 ‘혁신성장 5개년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자리 100만명, 수출액 500억 달러, 기업당 R&D 투자비율 3.6%를 각각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경영성과는 물론 일자리와 글로벌, 기술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뤄내는 이노비즈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국가경제 발전과 혁신성장의 주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